



세계적 광범위의 환상적인 볼로잉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인터넷회원 평일 최고 3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www.hpdmastery.co.kr 061320-7700, 7714



뛰어버린 '블로킹 벽'

12일 광주여성 체육관에서 열린 광주대표 조선대와 전남대표 목포대의 대학부 배구 8강전에서 조선대의 이정민이 세 명의 블로킹을 뚫고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날 경기는 목포대가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이경기 꼭! 보세요

박태환 자유형 100m 영주수영장

이육성 복싱 금 도전 광주고

전국체전이 막바지다. 각 시·도간 순위경쟁도 치열하고, 예선을 끝낸 각 종목의 금메달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를 보기에는 남은 일정이 제격이다.

체전 5관왕을 노리는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00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의 한국기록(50초02)을 넘어서 49초대로 진입한다면 베이징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한국관 미녀새' 최윤희(전북)는 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열리는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통산 15번째 한국기록 넘기에 나선다. 여자 장대높이뛰기는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기록 욕심이 더 크다.

돌아온 아마복싱 간판 이육성(충북)은 이날 광주고 체육관에서 플라멩고 결승전에 출전, 금메달을 노린다. 광주 전국체전 폐막일인 14일 오전 8시에는 동호인 마라톤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 폴코스(42.195km) 레이스가 광주시 서구 월드컵 4강로를 따라 펼쳐진다. '오뎅이 마라톤' 김이용(강원)이 통산 3번째 우승을 꿈꾸고 있다.

박태환은 마지막 날 혼계영 400m에 출전, 대미를 장식하는 다섯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종합 3위 향해 돌진

단체종목 선전·검도 우승 힘입어 목표 달성 가능 전남, 기록종목 부진 한 자릿수 지키기 어려울 듯

광주 박경화 女 점영 200m 금 추가 3관왕

88회 전국체육대회 종반인 12일 광주가 단체종목 선전과 전남 검도종합우승에 힘입어 종합3위를 향해 경북과 숨가쁜 레이스를 펼쳤다.

반면 전남은 기록종목 부진으로 한 자릿수 지키기가 힘들어 졌다.

이날 현재 광주는 금 35개, 은 35개, 동 38개를, 전남은 금 41개, 은 25개, 동 47개를 획득했다.

▲광주=이정재(광주은행)가 12일 정광고등학교에서 열린 여도 남자일반 인상 77kg에서 149kg을 들어올려 금을 따냈다.

우스미(국제고)는 태권도 여고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보냈다.

이우주(남구청)는 남자일반 레슬링 자유형55kg급에서 금을 획득했고 박경화(광주시체육회)는 수영 여자일반 점영200m에서 2분15초08을 기록해 3관왕

에 올랐다.

서석원(호남대)은 양궁 남대 개인전에서 112점을 쏘아 금빛과녁을 명중시켰으며 박경화·이지선·이은혜·선보경(광주시체육회)은 수영 여자일반 계영400m에서 3분53초46으로 결승선을 제일 먼저 끊었다.

단체종목에서는 금호고가 축구 남고부에서 부산 부영고를 2-0으로 제치고 은메달을 확보했다.

국군체육부대도 야구 일반부에서 충북 건국대를 꺾고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정구 남자일반부 동구청도 역시 동메달을 확보하고 금메달에 도전한다.

육창기(광주체고)는 복싱 고등부 웰터급에서 은메달을 확보했다.

국군체육부대는 배구 남자일반 단체전에서 인하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이지은(전남제일고)은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고부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김고은·이삭·김달은(전남선발)과 조를 이뤄 계영400m에서도 3분52초69로 대회신을 작성하며 3관왕에 올랐다.

이에 질세라 정다래(부영여고)는 여고부 평영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나아름(전남미용고)은 사이클 여고 도로개인독주 15km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고, 나종관·주형진·정성국·이승배(해남공고)는 펜싱 남고 에페 단체전에서 금빛 찌르기를 성공시켰다.

한편 수영 기대주 최해라(서울체고·서울)는 여고부 점영 200m 결승에서 2분9초03에 터치패드를 찍어 자신이 8월 일본국제수영대회에서 세운 종전 한국기록(2분9초46)을 0.43초 앞당겼다.

개인혼영 200m, 계영 800m에 이어 계영 3관왕에 오른 최해라는 남은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에서 5관왕을 노린다.

'마린보이' 박태환(경기고·서울)은 남고부 계영 400m에서 서울팀 마지막 영자로 3분27초22로 끝인, 금메달을 보냈다.

계영 800m와 자유형 200m에 이어 대회 3관왕.

인라인롤러 '장거리 여왕' 우효숙(충북)은 여자일반부 15,000m제외 레이스에서 25분31초58로 한국 기록을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히어로

“올림픽 향해 뛰어야죠”

수영 3관왕...전남제일고 이지은

“이제는 올림픽을 향해 뛰어야죠”

전남 수영대표 이지은(18·전남제일고)은 12일 광주시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자 고등부 계영 400m에서 우승. 지난해에 이어 연속 3관왕에 오른 뒤 야심찬 소감을 밝혔다. 이양은 경기 둘째 날 열린 계영 800m에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지만 셋째 날 자유형 200m에서 금빛 물살을 가른 후 자유형 400m와 계영 400m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냈다.



이날 열린 계영 400m 경기는 이지은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마지막 영자로 나선 이양은 3번째 선수가 1m가량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25m 지점에서 역전 시켰다. 반환점을 돌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2위 대구팀의 선수를 2초22의 큰 차이로 따돌리고 3분52초69로 끝냈다.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운 대회신기록이었다. 체전 스타가 된 이양을 알아보는 사람도 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원봉사자 등 수십 명의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다음목표는 국가대표”

평영 200m 금...부영여고 정다래

“하루빨리 태극마크를 달고 싶어요”

12일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고부 평영 200m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고 2관왕에 오른 전남대표 정다래(부영여고 1)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광주라서 그런지 편안하게 했고, 다음 목표는 국가대표”라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여수구룡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에 입문한 정다래는 문수중학교를 거쳐 부영여고에서 안종택 코치를 만나 꽃을 피우고 있다.

수영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정다래는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MBC배 수영대회 평영 100m, 200m에서 2관왕에 올랐으며 대통령기에서도 역시 평영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4관왕으로 전국체전 금메달을 예약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모교 배구팀 재창단 도와주세요”

광주여성 선수 출신 박미희씨



박씨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모교인 광주여성 배구팀은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61년에 창단돼 여자배구의 역사를 써내려오던 배구팀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창단 35년만인 지난

1996년에 해체된 것이다. 한때 여자국가대표팀 12명 중 7명의 선수를 배출하기도 한 여자배구 명문교가 사라졌다며 많은 배구인도 안타까워했다.

아쉬워하던 박씨도 모교 팀의 재창단을 돕기로 결심했다. 광주여성 배구팀 감독을 13년 동안이나 맡았던 체육선생님이 작년에 모교의 교장(최경·57)으로 부임한 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것.

박씨는 “스포츠 스타는 고향의 외교관이나 마 찬가지”라며 “좋은 선수들을 육성할 배구팀이 부활한다면 몰심양면으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반가운 옛 스타

“요즘 선수들 운동량 부족 아쉬워”

육상 200m 한국신 보유 장재근씨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걸뭇을 부리고 인기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20초41의 200m 한국신기록 보유자 장재근(47·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씨가 12일 열린 남자 200m 육상경기를 보고 난 후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선수들에게 일침을 놨다.

이번 전국체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관독실 주임을 맡고 있는 장 이사는 “예전에는 내 기록이 안 깨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젠 깨지지 않는 기록을 보면 화가 먼저 난다”고 말했다.

20년 전보다 시설이나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선수들의 노력은 당시보다 떨어졌다는 것이 장 이사의 생각.

장 이사는 “현재 선수들의 운동량은 내가 선수시절 했던 운동량의 5분의 1도 안 된다”며 신세대 건국들의 게으름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장 이사는 선수들이 100m·200m 등 결승점을 통과할 때 1천분의 1초 순간까지 관독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로 정확한 순위를 가려주는 관독실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

또 성관관대에서 육상 강의와 박사학위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대한육상경기연맹 홍보이사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오늘 주요 경기

- ◇13일
 - ▲농구=남·여고(오전 11시·수피아여고체육관), 남·여일반(오전 11시·구동체육관)
 - ▲레슬링=자유형(오전 9시30분·조선대체육관)
 - ▲배구=남고(오전 10시·전남대체육관), 남대, 여고, 여자일반(오전 10시·광주여성체육관)
 - ▲배드민턴=단체전 결승(오전 10시·광주대)
 - ▲복싱=결승(광주교대다목적회관·광주체육관)
 - ▲수영=남·여고, 일반(오전 9시·영주수영장)
 - ▲양궁=단체전(오전 9시 30분·영주양궁장)
 - ▲농구=남대(오전 10시·살레시오고체육관)
 - ▲정구=결승(오전 9시·동신고정구장)
 - ▲탁구=단체전 결승(오전 10시·광주제일고)
 - ▲태권도=헤비급 결승(오전 9시·다목적체육관)
- ◇14일
 - ▲농구=남·여고 결승(오전 11시·수피아여고체육관), 남·여일반 결승(오전 11시·구동체육관)
 - ▲레슬링=자유형 결승(오전 9시·조선대체육관)
 - ▲배구=남고 결승(전남대체육관), 남대 결승(이상 오전 10시·광주여성체육관)
 - ▲축구=남고(광주공무원교육원축구장), 남대(무등경기장축구장), 남자일반(호남대축구장), 여고(과학교육원축구장·이상 오전 11시)
 - ▲펜싱=남여일반부(오전 9시·동강대체육관)